

미국 철학자들에게 던지는 ‘유럽적’ 질문

이탈리아 철학자 보라도리의 《미국의 철학자들》(The American Philosopher)

이봉재

서울산업대 교수·인문학과

우리는 여전히 철학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 기술이 철학으로부터 지식의 위엄을 상당부분 빼앗아갔지만, 삶과 삶, 가치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가지지 않고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철학이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해주는 종차(種差)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철학은 하나의 문제거리다. 여러 종류의 이야기 방식, 특히 진리에 대한 독점권마저 가진 듯한 과학이 있고 나서 철학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흔히 분석철학(analytic philosophy)이라고 불리는 현대 미국철학은 이에 대한 전례없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논증과 반박에만 몰두하는 철학

분석철학을 약간만이라도 접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종류의 철학이다. 그들은 의미, 선(善), 마음, 과학적 설명, 법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과학도 아니고 언어학도 아니고 도덕론도 아니며, 전통적 철학의 모습도 아닌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 문제들은 마치 고급의 논리적 퍼즐처럼 나타난다. 그들의 말투는 더욱 어색하다. 단어와 개념들로부터 어떤 울림의 여지도 삭제함으로써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다. 수사법은 실종되고, 단순명료한 논증과 그에 대한 논박들만이 가득하다. 철학이 언제라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어떤 체계도 시도하지 않으며, 형이상학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으로 무장한 채, 오직 논증과 반박에만 몰두하는 철학.

철학으로부터 사상적 체계와 수사법을 탈색시키려는 이 극단성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분석철학자들은 이 물음을 무시함으로써 답변한다. 그것은 제기되어서는 안되는 종류의 물음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철학에서 그것은 답변이 아니다. 다른 지식들은 철학에 답변을 이양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철학은 마지막 답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어떤 물음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분석적 자폐성 자체다. 자폐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외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지오바나 보라도리

보라도리

(Giovanna Borradori)의 책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분석철학의 ‘역사적 正體’를 파헤친다. 거기서 분

이탈리아 철학자 보라도리는

현대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에게 ‘유럽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들 사유의 인격적

기원과 영향력의 물음에 대해

보라도리가 만난 여러 철학자들은

‘철학의 과학화’에서 그 답을

찾는다. 이 책은 분석철학의

역사 속에서 ‘철학’의 의미심장한

탐구를 수행하고 있다.

석철학은 새로운 형태의 ‘과학’으로 진단된다. 과학의 진리주장은 배제한 채 과학의 형식을 차용한 이야기의 방식으로.

보라도리의 방식은 미국철학자들에게 ‘유럽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들에게 사유의 ‘인격적’ 기원과 영향력에 대해서 묻는다. 너는 누구에게 영향받았느냐? 그것은 너의 선배 철학자들의 사상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것은 미국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유럽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술이나 문학 등의 분야에는 어떤 관심이 있느냐? 등. 전형적인 미국철학자들(예컨대 콰인, 데이비슨)은 이를 대단히 낯설어 한다.

분석철학의 은폐된 무의식

‘내가 이런 철학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다, 나는 철학을 수직적으로보다는 수평적으로 본다, 그것은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 유럽철학자들의 글을 이해하기 힘들다’ 등. 이상한 일이다. 철학이란 원래 사상사적 뿌리에 대한 예민함 아닌가? 그런데 이들 철학자들은 자신 사유의 기원과 인격적 자취에 대해 왜 그토록 둔감할까?

보라도리가 만난 여러 철학자들은 ‘철학의 과학화’에서 그 답을 제시한다. 자신의 주장을, 어떤 역사적 기원과도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오직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서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석적 엄밀성의 태도와 탈역사적 감각이야말로 과학의 정신 바로 그것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로티가 지적하듯, 이러한 철학정신 자체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미국 분석철학의 기원은 2차대전을 전후하여 이식된 중부 유럽의 실증주의 전통이다. 중부 유럽에서 과학과 실증주의는 야만에 대한 반대어의 의미를 가진다. 나치즘의 비과학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그들은 문명으로서의 철학은 어떠한 신비적 어법도 거부하며, 오직 엄밀한 주장과 논박으로만 이뤄지는 ‘과학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분석철학의 은폐된 무의식에 대하여 분석철학자들 스스로가 얻어낸 깨달음이 보라도리 책의 진짜 주제다. 미국철학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탈분석철학(post-analytic philosophy)’이 이 깨달음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과학과 철학의 관계, 철학의 본질에 대하여 분석철학의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거부된다.

그들은 철학적 이야기를 다시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이는 철학을 과학, 예술과 구분되는 말하기의 근본적인 한 형식이라고 보기도 하며, 다른 이는 과학, 예술, 철학을 어떤 질적 구분도 무의미한 내러티브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분명해지는 것은 철학과 과학간의 분명한 차이이다. 대표적인 탈분석철학자인 퍼트남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철학이 논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논증이 분석적 스타일일 필요도 없다.”

분석철학의 역사를 유럽인의 눈으로 봄으로써 보라도리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심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 보라도리의 책으로부터 우리는 분석적(또는 과학적) 명료함과 철학적 명징성 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인간이 엄밀해진다는 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과학이 엄밀함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 어디선가 까뮈가 말했다. 단어가 그것이 있어야 할 적절한 자리에 놓여질 때 세상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보라도리의 책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표현의 미학이 철학 안에 놓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단서 또한 찾을 수 있다. ❖

